

# 科學과 經濟學의 方法論的 考察

嚴 永 錫\*

<目 次>	
I.	序 論
II.	科學方法論의 展開過程
III.	經濟學의 方法論
IV.	新古典學派理論의 方法論的 評價

## I. 序 論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學派의 經濟學理論이 소개되고 있다. 西歐 資本主義社會에서 主流을 이루고 있는 新古典學派의 理論을 비롯하여 後케인즈學派理論等の 많은 理論들을 檢討하며 또한 이와 같은 理論들이 韓國經濟를 얼마나 잘 說明하며 또한 豫測하고 있는가를 檢討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로 競爭하는 理論들을 比較分析하고 理論의 實驗可能性等에 관한 問題를 檢討하는데 科學哲學의 方法論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經濟學이 과연 科學이나 또는 근본적으로 經濟學이 自然科學과 다르지 않느냐하는 問題는 과거에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중시하여야 할 것은 經濟學者들의 方法論이 科學哲學의 方法論에 비하여 그 內容이 단순하였고 또한 그 方法論이 오랜 期間을 통하여 큰 發展을 해 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밀, 케인즈, 시니어等の 古典學派의 方法論이나 최근 로빈스의 方法論이 거의 同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經濟學者中에도 科學哲學에 관심을 갖는 學者들이 많아지고 科學哲學을 연구하는 學者들도 經濟學에 대한 관심을 높혀가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韓國經濟에 대한 많은 研究를 하여 왔으며, 이제 韓國經濟學에 대한 보다 깊은 모색을 하여야 할 段階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韓國經濟學의 모색을 위하여서도 科學哲學의 方法論을 理解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韓國外國語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우리는 科學의 哲學 또는 方法論을 檢討함에 있어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科學이란 무엇인가, 科學의 對象은 어떤 것인가, 科學이 成立하기 위한 要件은 무엇인가, 科學의 命題는 普遍妥當성을 갖는 永久不變의 法則인가, 科學의 發展過程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科學의 命題를 取舍選擇하는 根本的 基準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社會科學은 自然科學과 어떻게 다른가, 經濟學者들은 科學의 方法論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등의 問題는 社會科學이나 自然科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科學의 方法論의 問題들을 綜合的으로 심도있게 分析하기는 힘들겠으나 本論文에서는 이러한 問題들에 대하여 최근의 科學哲學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소개하면서 經濟學者들의 方法論과 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科學哲學에 있어서 쿤(Thomas Kuhn), 포퍼(Karl Popper) 그리고 라카토스(Imre Lakatos)와 같은 學者들의 이론이 알려짐에 따라 經濟學者들도 이러한 科學哲學에 상당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經濟學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科學哲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양한 경제이론이 명증하는 이 시점에서 經濟學이 科學으로서 發展해 가기 위하여서는 方法論의 體系가 갖추어질 必要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科學의 方法論이 확립되지 않으면 經濟學者들은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學問의 科學으로서의 타당한 방향에 대하여 주관적인 판단에만 치우칠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 예로서는 經濟學이 지난 約 1世紀 동안 實際經濟問題와는 關聯이 없는 抽象的, 先驗的인 問題와 그리고 經濟學의 數學的 및 論理的 構造의 展開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研究室 속의 學問으로 변하여 가고 있는 傾向이 짙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現代科學哲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학은 不變의 眞理를 찾아내려는 데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科學的인 命題는 反證될 수 있다는 事實을 認定하는 겸허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새로운 科學의 命題는 기존의 命題보다 實驗的 內容이 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重要視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現代科學哲學에 있어서는 現實을 보다 잘 說明할 수 있는 새로운 內容이 포함되고 또한 그 內容의 일부가 檢證되어야 새로운 科學의 命題로서 중시되기때문에 科學과 現實의 關係를 더욱 중시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과거에 있어서는 科學의 命題는 普遍妥當성을 갖는 불변의 法則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科學의 法則을 발견하는 데는 先驗的이고 演繹的(a priori, deductive) 方法을 사용함으로써 實驗의 役割이 경시되어 왔던 것이다. 다만 實驗의 役割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先驗的으로 導出된 法則을 새롭게 現實로써 證明하여 주는 役割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科學하는 사람들 중에 이와같이 永久不變하는 眞理를 研究室에서 찾아 내겠다고 생각할 만큼 당돌한 學者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의 學問이 어떠한 경우에 反證될 수 있다는 것을 認定하게 됨으로써 學問하는 태도가 겸손하여진 것도 事實이다. 다시 말하면 科學의 方法論은 과거에 생각한 바와 같이 一元的 方法論(methodological monism) 보다는 多元的 方法論(methodological pluralism)이 科學의 發展에 기여한다는 것을 認定하게 된 것이다.

또한 科學의 方法論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經濟學을 研究하는 目的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것이다. 韓國이라는 特定國家에서 살면서 우리가 經濟學을 研究하는 것은 결국 韓國經濟의 問題點을 보다 더 잘 理解하고 說明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研究하는 經濟學의 理論은 궁극적으로 韓國經濟의 現實을 얼마만큼 잘 說明하는가에 科學의 命題로서의 存立價値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어느 特定한 經濟學理論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問題만 잘 說明하여 주면 되는 것이 아닐까? 과거 韓國經濟學의 課題에 관한 論議를 보면, 美國이라는 경제여건이 다른 地域을 背景으로 한 經濟理論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主張과 다른 한편에서는 經濟理論은 普遍妥當性을 갖는 人間活動의 法則을 研究하는 것이므로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는 주장의 二元的 黑白論理에 빠진 예가 많아서 韓國經濟學의 方法論이 發展할 여지를 갖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첫째 現代科學의 方法論을 檢討하고, 둘째 經濟學者들의 方法論을 學說史的으로 分析한 後 마지막으로 經濟理論을 과학철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하여야 하는가를 시도하여 보았다.

## II. 科學方法論의 展開過程

### 1. 檢證主義

科學方法論의 發展過程을 要約하여 보면 19世紀에 있어서는 檢證主義(verificationism) 方法論이 지배적이었고 이는 先驗的으로 導出된 普遍妥當性 있는 法則을 現實에 적용하여 證明하는 方法인 것이다. 이 方法論에 의하면 現實實驗은 단지 이미 設立된 法則을 證明하여 주는 役割밖에 할 수 없다고 主張한다. 檢證主義 方法論이 갖는 問題點은 理論 및 法則이 現實을 精確하게 說明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고 따라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대부분의 檢證主義者들은 理論과 現實이 맞지 않는 경우 理論에 矛盾이 있다고 보지 않고 現實과 理論사이의 차이를 發生케 하는 攪亂要因(disturbing

factors)이 개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嚴格한 檢證主義가 주장하는 교란요인이 애매한 기준이 됨을 고려하여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確率的인 概念을 도입하였다. 예컨대 理論 또는 假說이 現實을 어느 程度만 說明하면 檢證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따라서 엄격한 檢證主義는 좀 더 伸縮性 있는 確率的 檢證主義(probabilistic verificationism)로 넘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科學의 方法論의 立場에서 고려할 때 確率이라는 概念을 導入한다 하여도 確率의 水準에 관한 판단에는 客觀的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없고 개개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確率的 檢證主義는 嚴格한 檢證主義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러한 嚴格한 檢證主義나 確率的 檢證主義에서 共通的으로 問題되는 것은 論理的으로 볼 때 어떠한 命題를 事實로써 證明한다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普遍妥當性이 있어 보이고 예외가 없어 보이는 命題(예컨대, all swans are white)도 이를 證明하는 것은 論理的으로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즉, 무한한 數의 證明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 實驗하고 그 命題를 檢證하였다고 임의로 主張할 수도 있으나 論理的으로 볼 때 檢證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問題에는 確率이 介入될 수 없는 것이다. 論理의 世界에서는 確率은 1이 아니면 0이기 때문이다.

## 2. 盲目的 反證主義

科學哲學 및 方法論의 획기적인 전환은 科學的 命題는 檢證(verify)될 수는 없으나 反證(refute)될 수는 있다는 것이다. 科學史를 돌이켜 볼 때에도 모든 科學的 理論은 反證되고 새로운 理論이 대두되어 왔다고 하겠다.

反證主義의 가장 단순한 形態로서 盲目的 反證主義(dogmatic falsificationism)를 들 수 있다. 盲目的 反證主義에 의하면 科學의 命題는 現實을 說明 못하면 反證된다고 主張한다. 즉 檢證主義와는 정반대로 現實의 重要性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盲目的 反證主義가 아직도 과거의 檢證主義의 要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理論이 現實과 맞으면 그 理論은 現實에 의하여 證明되었다고 主張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傳統的 檢證主義에 의하면 先驗的, 演繹의 方法에 의하여 導出된 理論은 不變하는 法則으로서 現實은 다만 이를 證明하여 주는 役割을 함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와 비교하여 盲目的 反證主義에 의하면 理論이 成立하기 위하여서는 實驗에 의하여 檢證되어야 한다고 主張된다. 즉, 盲目的 反證主義는 現實에 證점을 둔 특징은 있으나 實驗이 理論을 證明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盲目的인 反證主義는 가장 약한 形態의 檢證主義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盲目的 反證主義가 갖는 결점은 이 方法論이 갖고 있는 두가지의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첫째 前提는 理論的, 推論的 命題(theoretical and conjectural proposition)는 事實的, 觀察的(factual and observational) 命題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구분이 成立되면 理論的, 推論的 命題는 實驗에 의하여 證明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理論的 命題와 觀察的 命題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 두 命題를 구분하는 人間的 感覺(sense)이 여러가지 社會的, 文化的 주위환경의 要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첫째의 假定이 맞다고 하더라도 둘째의 假定이 成立될 수 없음은 위에서 間接的으로 指摘하였다. 즉 어떠한 命題를 現實로써 證明한다는 것이 論理的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은 모든 理論은 反證은 되나 檢證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方法論的 反證主義

以上에서 指摘한 盲目的 反證主義의 矛盾을 극복하고 科學의 發展過程을 科學的으로 說明하고자 하는 接近法이 포퍼, 라카토스에 의하여 展開되었다. 이와같은 方法論的 反證主義(methodological falsificationism)도 순수한 反證主義와 정교한 反證主義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 두가지의 差異點을 檢討하는 것이 方法論的 反證主義의 本質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순수한 反證論者는 實驗에 의하여 反證될 수 있는 理論은 모두가 科學的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반하여 정교한 反證論者들에게 있어서는 만약 어떤 理論이 이미 존재하는 理論보다 더 나은 經驗的 內容(empirical content)을 가질 때, 즉 새로운 事實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될 때, 科學的인 理論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로 새로운 理論은 보다 많은 實驗的 內容을 가져야 하고 둘째로 이러한 實驗的 內容의 一部가 證明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의 條件은 先驗的, 論理的 分析에 의하여 쉽게 알 수 있으나 둘째 條件은 實際 經驗을 통해서만 證明되는 것으로 긴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떠한 理論이 기존의 理論보다 더 많은 實驗的 內容을 갖고 있으면 이 理論이 理論的으로 發展的(theoretically progressive)이라고 한다. 또한 理論的으로 發展的인 理論이 그 새로운 內容중 一部가 經驗的으로 證明되었을 때 이 理論을 實驗的으로 發展的(empirically progressive)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교한 反證主義論者에 의하면 특정한 하나의 理論을 評價하는 것이 아니라 理論의 시리즈를 評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교한 反證主義는 어떤 理論을 評價하는 데 있어서 實驗이 가장 重要하다는 事實을 부정한다. 따라서 정교한 反證主義에 의하면 어떠한 實

驗이나 報告書, 또는 觀察할 수 있는 假說로써 어느 理論을 反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롭고 보다 나은 理論이 나타나기 전에는 既存理論이 잘못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理論에 대한 反證은 보다 나은 理論의 대두에 의한다고 한다면 反證이라는 것이 단순히 理論과 實驗의 關係를 넘어서 競爭하는 理論들, 既存理論의 實驗範圍, 그리고 새로운 理論의 보다 넓은 實驗能力 등의 복잡한 關係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따라서 既存理論과 새로운 理論, 既存理論의 經驗과 새 理論의 經驗을 다룬다는 意味에서 볼때 歷史的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순수한 反證主義에 있어서의 反證, 즉 확인된 反對現象(counter-evidence)만으로는 특정한 理論을 제거할 充分한 條件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理論이 많은 非正常的 要因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理論이 나올 때까지는 잘못된 理論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순수한 反證主義에서의 反證이 정교한 反證主義에 있어서 필요한 條件도 되지 않는 것이다. 정교한 反證主義에 의하면 어느 理論이 發展的(progressive)일 때 그 理論의 시리즈가 전개되는 過程에서 理論 T를 反證한다기 보다는 理論 T+1을 證明하는 現象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정교한 反證主義에 의하면 많은 理論들이 併存함으로써 보다 나은 理論의 전개에 더 큰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이고 퇴보하는 理論을 反證하려는 努力은 減少된다고 하겠다.

다음은 라카토스의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의 내용을 檢討하여 보겠다.

#### 4. 라카토스의 科學的 研究프로그램<sup>(1)</sup>

科學的 研究프로그램(Scientific Research Programs)은 그 中心에 堅固한 中核(hardcore)이 있고 이러한 堅固한 中核을 둘러싼 保護벨트(protective belt)로써 形成되고 있다. 保護벨트는 補助的인 假說들로 構成되어서 堅固한 中核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實驗의 對象이 되는 特徵을 갖고 있다. 따라서 保護벨트를 만들고 있는 補助的인 假說들은 항상 變化하고, 修正되며 더 나아가서는 전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補助的인 假說은 수시로 變化하면서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을 發展시켜 나가는데 이러한 現象을 積極的 發見法(positive heuristic)이라고 한다. 반면 堅固한 中核은 일단은 反證할 수 없는 것으로 假定하고 이에 대한 批判을 억제하는 것을 消極的 發見法(negative heuristic)이라고 한다.

따라서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의 保護벨트가 확장되면서 實驗的 內容이 넓어지고 또한 그

(1) I. Lakatos, "Falsification and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r,"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I. Lakatos and A. Musgrave,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p. 91-196.

中의 一部가 現實에 의하여 證明되게 될 때 그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을 進步的 問題移動 (progressive problem-shifts)이라 하고 保護벨트가 계속 줄어들면서 現實을 說明하는 內容이 적어져 갈 때는 그 프로그램이 退步的 問題移動(degenerating problem-shifts)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精巧한 反證主義의 特徵中 하나는 여러가지의 競爭되는 理論들이 存在하고 있는 것이며, 어느 理論이 反證되었다고 하여 즉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게 되며 다만 다른 理論보다 나은 理論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存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理論이 反證되면 즉시 포기되고 또 다른 理論이 대두하는 式의 線形的 發展過程이라기 보다는 많은 理論이 동시에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一元的 方法論(methodological monism)이 아니라 多元的 方法論(methodological pluralism)으로 특징지워진다고 하겠다.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더 實驗的 內容이 많고 또 그 一部가 證明되어야만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事實을 說明한다는 것은 결코 쉽고도 명백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實驗的 假說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妥當性을 알아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새로운 事實을 說明하는 理論이 대두되었다 하여도 오랜 후에 認定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重要的 意味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理論이 새로운 現實을 잘 說明하지 못하여 既存 理論에 競爭者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理論이 積極的 發見手段(positive heuristic)을 갖고 있을 때에는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카토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는 새롭게 싣트는 科學프로그램을 現在 競爭되는 理論에 앞서가기에 失敗하였다 고 하여서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發展的 問題移動(progressive problem-shifts)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직도 경쟁이론을 失敗시킬만한 理論이 아니라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새로운 事實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아마추어의 實驗의 結果라고 하더라도 만약 새롭게 싣트는 研究프로그램이 發展的 問題移動을 合理的으로 만들고 있다면 強力한 競爭理論으로 부터 어느 期間동안은 保護하여 줄 必要가 있다.”<sup>(2)</sup>

따라서 競爭하는 理論들의 서로 다른 主張을 판가름하는 決定的 實驗(crucial experiments)이라는 것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를 뒤돌아 볼 때 어떤 決定的인 實驗이 特定理論의 優位性을 확고히 한 예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科學者들은 어느 프로그램의 發展的 發見法을 理解하는 데 상당한 意見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2) 前掲書, p. 157.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어떠한 決定的인 實驗을 통하여 순간적으로 理論을 평가하는 소위 瞬間的 合理性(instant rationality)은 理想에 지나지 않는 概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카토스를 인용하면, “科學에 있어서의 連續性(continuity in science), 어떤 理論의 끈질김(tenacity of some theory), 그리고 어느 정도 盲目主義의 合理性 등은 理論들이 독자적으로 分離된 때 보다는 科學理論들이 모여서 戰鬥場을 만들 때에 나타나는 現象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sup>(3)</sup>라고 하였다.

라카토스는 競爭하는 科學을 순간적으로 判決하는 決定的 實驗은 認定하지 않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成熟한 科學(mature science)과 未熟한 科學(immature science)을 區別은 하고 있다. 成熟한 科學은 새로운 事實뿐만 아니라, 重要的 意味에 있어서 새로운 補助理論이 豫想되는 研究프로그램들로 構成된다고 한다. 따라서 成熟한 科學은 發見的 能力(heuristic power)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發見的 能力은 그 理論的인 科學이 계속 自動적으로 發展하여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 이러한 뜻에서 科學의 發展은 계속 새로운 事實을 說明하면서 實驗的 內容을 확대하여 가는 곳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科學이 계속 發展하여야 한다는 主張은 어느 科學이 계속 實驗的 內容을 發展시켜 나가지 못할 때에는 科學으로서의 價値가 弱화된다고 主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보면 마르크스의 理論이나 프로이드의 理論은 統合되고 完結된 概念으로서 새로운 發見的 能力(heuristic power)이 缺如되고 있어서 科學으로서의 弱點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로, 이러한 方法論은 理論的으로 體系를 갖추지 못하면서 統計的인 技術을 利用하여 組立된 理論의 弱點을 指摘한다. 체계가 없는 이론도 어느 정도 現實을 豫測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그 理論은 어떠한 統合된 아이디어도 없고, 發見的인 能力도 갖지 않고 있으며 理論의 連續性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科學的 프로그램으로서의 價値가 없다고 하겠다.

### 5. 科學革命

現代科學의 方法論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쿤(Thomas Kuhn)의 科學革命<sup>(4)</sup>에 관한 理論과 前述한 라카토스의 理論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根本적으로 쿤 역시 歷史的으로 볼 때 모든 科學 또는 科學的 파라다임(scientific paradigm)은 革命的 過程에 의하여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代치되어 왔다고 함으로써 反證主義 理論과 같은 內容을 갖는다. 그러나 쿤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어떠한 時點에 있어서는 支配的인 파라다임(dominant paradigm)이 存在하고 이러한 支配的인 파라다임은 그 社會의 대다수의 科學者들이 支持함

(3) 前掲書, pp. 174-175.

(4) T.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1970.



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본 점에 있다.

따라서 쿤의 科學方法論은 心理的 方法論(methodological psychologism)이라고 불리우게 된다. 또한 쿤은 새로운 科學方法論이 支配的으로 되어 既存의 科學方法論을 代置하는 過程을 科學의 革命(scientific revolution)이라고 하였다. 쿤 역시 科學의 革命過程에서 새로운 理論과 既存의 理論과의 關係를 說明함으로써 科學成長의 繼續性(continuity of scientific growth)과 어떤 科學理論의 근질김 等에 關하여 논하고 있는 점에서는 소위 순수한 反證主義보다는 더욱 發展한 科學의 方法論이라고 하겠으나, 科學의 發展過程을 論理的이고 科學的으로 說明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心理學에 依存한 점에서 포퍼나 라카토스의 理論과 區別된다고 하겠다.

특히 어느 理論이 科學의 革命에 의하여 대체된다는 것은 새로운 理論만이 남게 된다는 意味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 있어서 지배적인 科學方法論만 研究하면 되겠지만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過去의 理論들도 아직 그 有用性이 남아 있어서 現代의 理論과 併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케인즈革命이란 用語가 使用되고 있기는 하나 케인즈革命은 新古典學派理論을 代置하는 科學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이른바 쿤이 意味한 革命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또한 쿤은 科學이 支配的인 科學方法論으로 되는 過程에 重點을 둔 데 반하여 포퍼는 科學理論의 多樣性과 併立性에 關하여 重點을 두어 科學의 發展을 說明하고 있다. 따라서 多元的 方法論(methodological pluralism)을 主張하는 면에 있어서 포퍼의 方法論이 社會科學을 理解하는 데 보다 더 適合한 方法論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經濟學의 方法論

#### 1. 經濟學 方法論의 展開

科學哲學의 方法論의 檢討가 과거 經濟學者들이 본 經濟學의 方法論과 어떻게 다른가를 比較하는 것은 앞으로 經濟學의 方法論을 보다 發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經濟學의 方法論에 關하여 古典學派 經濟學者中 스미스, 리카아도, 맬더스는 이를 直接的으로 論하지는 않았고 밀이 經濟學의 方法論을 깊이 있게 分析한 최초의 學者라고 할 수 있다.

스미스, 리카아도, 맬더스가 方法論에 대하여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經濟學의 分析方法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 즉 스미스는 先驗的이고 演繹的인 研究方

法和 광범위한 統計資料를 利用한 實證的, 歸納法의 方法을 併行한 데 特徵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맬더스와 리카아도에 이르면서 歷史的 統計資料를 利用하기 보다는 보다 抽象的이고 演繹的인 方法으로 經濟學의 方法論이 變化되었다. 맬더스가 現實問題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事實이나 根本的으로는 리카아도와 큰 差異가 없는 經濟學의 方法論을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古典學派學者中에서는 리카아도가 經濟學을 순수한 理論으로 展開하였으며 지금까지도 經濟學研究에 있어서 假說的이고 演繹的인 方法論을 철저히 따른 學者로서 알려져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밀의 經濟學 方法論을 檢討하기로 한다.

밀은 古典學派 經濟學者들中 처음으로 經濟學의 方法論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學者이다. 밀은 經濟學을 抽象化되고 單純化된 經濟人을 假定하여 經濟人의 行動에 관한 法則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밀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政治經濟學은 人間이 富를 획득하고 消費하는 데만 전적으로 몰두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動機가 人間行爲의 絶對的인 支配力을 가질 때 社會生活을 하는 人間이 어떻게 行動하는가를 보여주는 데 目的을 둔다.”<sup>(5)</sup> 또한 經濟科學은 그 自然的인 必要性에 의하여 어느 경우나 보다 작은 富에 비하여 보다 많은 富를 좋아한다는 假定下에서 展開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單純化된 方法에 대하여 밀은 現實과의 乖離問題에 염려를 표하기도 한다.

經濟學者들이 모든 人間이 이와 같이 單純한 動機에 의하여 行動한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指摘하면서도 이러한 抽象化는 科學이 進展하기 위하여 필요한 方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와 같이 單純化된 經濟人의 活動을 추리하여 만들어낸 經濟法則이 現實을 그대로 說明할 수는 없다. 따라서 理論과 現實의 乖離는 그 理論이 反證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理論과 現實을 일치하지 못하게 하는 攪亂要因들(disturbing factors)이 存在한다고 보았다. 理論을 現實과 比較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理論을 檢證(verify)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假說的이고 演繹的인 經濟法則은 普遍妥當性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밀이 單純化시킨 經濟人은 모든 行動을 金錢的인 富에만 限定시켰다는 데서 너무나 單純化된 것이 아닌가라는 批判을 면하지 못한다. 즉, 現代 消費者理論에서는 消費者는 效用을 極大化시키는 것으로 되어있고 消費者의 效用에는 金錢的인 것과 非金錢的인 것이 함께 포

(5) J.S. Mill, *Essays on Economy and Society, Collected Works*, J.M. Robson (ed.),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1967, p. 321.

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에 있어서는 아직도 利潤極大化라는 金錢의인 면만 취급하고 있으므로 現實을 說明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밀의 經濟學의 方法論은 그의 『論理의 體系』(System of Logic)에서 論한 것과는 상당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즉 밀의 『論理의 體系』에서는 演繹的인 論理를 批判하면서 演繹的 方法을 知能의 쓰제지機械(intellectual sausage machine)이라고 하였고 새로운 知識은 歸納法的 論理(inductive logic)로만 達成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밀은 社會科學은 이러한 理論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社會科學의 方法論은 어디까지나 演繹的인 方法에 의거하는 것으로 理解하였다. 이는 밀이 實證的인 經濟問題에 보다는 古典學派理論들을 綜合하는 데 큰 관심을 두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古典學派 經濟學의 方法論을 綜合하여 分析한 學者가 케인즈(John Neville Keynes)이다. 그는 그의 著書 『政治經濟學의 方法과 範圍』(The Scope and Method of Political Economy, 1981)에서 아담 스미스를 抽象的이고 演繹的(abstrac-deductive) 方法과 歷史的이고 歸納法的(historical-inductive) 方法을 동시에 적용한 學者로서 높이 評價하였으며 시니어, 밀, 케인즈의 經濟學 方法論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였다.

첫째, 經濟理論을 實證的인 科學과 規範的인 科學으로 分離할 수 있다. 둘째, 經濟事項들은 其他 社會現象으로부터 어느 정도 分離될 수 있다. 셋째, 具體的인 事實에 의한 直接的, 歸納法的 方法 또는 後驗的(a posteriori) 方法들은 經濟理論의 展開에 필요치 않다. 넷째, 올바른 方法은 몇개의 基本的인 人間의 本性에서 先驗的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經濟人의 概念은 抽象的인 人物이며 따라서 政治經濟學은 事實을 說明한다기보다는 傾向의 科學(science of tendencies)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古典學派의 經濟學 方法論은 사실상 現代에 와서도 主張되고 있는 것이다. 즉 나이트(Frank Knight), 로빈스(Lionel Robbins) 등이 이러한 方法論을 主張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學派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現代의 經濟學者들은 지난 약 半世紀 동안 새롭게 나타나는 科學哲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한 칼 포퍼, 쿤, 그리고 라카토스와 같은 學者들의 科學의 方法論에 익숙하여짐에 따라 現實을 보다 잘 說明할 수 있는 科學의 命題를 규명하는 데 重點을 두게 되었다.

經濟學의 方法論에 관한 論議中 相反되는 立場을 취하고 있는 프리드만과 로빈스의 方法論을 檢討함으로써 科學哲學 全般에 대한 論議와 어떻게 관련되어지는가를 보기로 한다.

## 2. 프리드만의 經濟學 方法論<sup>(6)</sup>

프리드만은 먼저 實證經濟學과 規範經濟學을 區別하면서 經濟學의 方法論을 展開하였다. 프리드만은 實證經濟學은 “what is”를 다룬 것이며 “what ought to be”는 規範經濟學의 分野에 속한다고 指摘하였다. 프리드만은 “實證經濟學의 課題는 어느 環境變化의 結果에 대한 올바른 豫測을 할 수 있는 데 使用되는 一般화된 組織을 提供하는 데 있다. 實證經濟學의 成果는 豫測의 正確性, 範圍, 經驗과의 일치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다. 요약컨대 實證經濟學은 어느 自然科學과 같이 客觀의 일 수도 있다”<sup>(7)</sup>고 指摘하였다.

이와 같이 프리드만은 實證經濟學을 客觀의이고 價値判斷이 배제된 科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經濟學을 實證經濟學과 規範經濟學의 두 概念으로 區分하는 方法論은 많은 經濟學者들간에 使用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두 概念의 區分은 그렇게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프리드만도 規範의인 判斷은 그 社會, 文化的인 背景에 의하여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指摘하였고 또한 規範經濟學은 實證經濟學으로부터 獨立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어떠한 政策結論은 其他의 政策中에서 特定한 事項을 취함으로써 發生하는 豫測에 依存하는데 이러한 特定事項의 結果에 대한 豫測은 實證經濟學에 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8)</sup>라고 指摘하였다.

또한 프리드만은 一般的으로 規範經濟學에 있어서의 意見의 差는 오히려 實證經濟學에 있어서의 意見의 差異보다 적다고 생각한다. 즉 特定社會에 있어서의 基本價値(basic value)에 대하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이 생각하는 데 비하여 經濟現象에 대한 豫測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다른 結論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두가 最低生活을 유지할 수 있는 賃金(living wage)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으나 반대로 이를 實行하는 手段의 하나인 最低賃金制의 影響에 관하여서는 學者들간에 意見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프리드만의 主張이 옳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어느 社會에 있어서 거의 異議가 없이 받아들여지는 基本價値가 存在하는 것은 事實이나 또한 基本的이 아닌 價値(non-basic value)에 대하여서는 많은 意見의 差異가 發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經濟政策의 目的中에 成長과 富의 分配사이의 選擇에 있어서, 또한 인플레이와 失業의 選擇에 있어서 여러가지 다른 意見이 提出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리드만은 實證經濟學과 規範經濟學의 區分과 서

(6) M. Friedman,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Philosophy and Economic Theory*, F. Hahn and M. Hollis (eds),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18-35.

(7) 前揭論文, p. 19.

(8) 前揭論文, p. 20.

로가 갖는 意味에 관하여 보다 깊이 分析하기 보다는 自然科學과 같은 客觀的 價値判斷을 배제한 經濟學이 存在할 수 있음을 쉽게 認定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프리드만은 實證經濟學이 科學으로서 어떠한 要件을 具備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 經濟學의 命題의 優位性이 어떤 方法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부분의 論議를 展開하고 있다. 프리드만은 經濟의 理論은 결국 그 豫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물론 理論이 成立하기 위하여서는 그 理論의 理論的인 構造 또는 言語學的 構造도 必要하겠으나 결국은 그 理論의 基本的 假說(substantial hypothesis)이 現實을 얼마나 잘 豫測할 수 있는가가 重要하다고 하였다.

프리드만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假說의 有效性(validity)에 대한 단 하나의 테스트는 豫測과 經驗(experience)과의 比較이다. 만약 豫測이 經驗과 一致하지 않거나 다른 假說보다 자주 一致하지 않으면 그 假說은 포기되어야 하고, 만약 豫測이 틀리지 않으면 受容되고, 矛盾이 생길 많은 機會를 克服하면 큰 信賴感이 부여될 것이다. 事實은 假說을 證明할 수는 결코 없으며 그 假說을 다만 否定하기에 失敗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통 사용하는 용어로 假說이 經驗에 의하여 確認(confirm)되었다고 한다.”<sup>(9)</sup>

以上の 프리드만의 說明中에서 現代科學哲學의 概念과 아주 비슷한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즉 現實이 어떤 假說을 證明하지는 못하나 다만 反證하는 데 失敗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科學哲學이 反證의 方法論으로 轉換된 것과 一脈相通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視點에서 보면 프리드만의 科學方法論은 科學의 反證論中에서도 極端的인 反證論者에 속한다고 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理由は 다름아니고 프리드만이 假說(또는 理論)의 存在는 오로지 豫測의 程度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現在の 科學方法論은 처음부터 絕對不變의 法則이 存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不完全한 여러 개의 科學命題中 어느 것이 덜 不完全한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假說의 有效性은 豫測의 成果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으로 假說의 設定過程에서 부수적으로 使用하는 假定(assumption)의 現實性이 그렇게 重要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經濟學의 討論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그 理論의 背後에 있는 假定이 맞는지에 대한 論議가 重要視되고 있다. 즉 完全競爭의 假定, 利潤極大化의 假定 등이 現實을 잘 說明하고 있는지에 대한 論議가 이러한 假定에 立脚한 理論의 有效性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學者들도 있는 데 반하여, 프리드만은 假定은 오히려 非現實의 일 수도 있으며 假定의 役割은 假

(9) 前掲論文, pp. 22-23.

說(또는 理論)을 보다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假想(as if)의 狀況을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리드만은 現實問題를 說明하는 많은 假說들을 檢討하였다. 恒常所得概念, 通貨와 經濟成長의 關係 等은 프리드만과 같이 實證經濟學에 重點을 둔 學者가 研究하였다는 것이 당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이다.

### 3. 로빈스의 經濟學 方法論

프리드만과 方法論이 대조적인 로빈스의 立場을 檢討하여 보자. 로빈스의 「經濟學의 性格과 意義에 關한 艾塞이」(An A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1932)는 이미 經濟學을 專攻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論文이라고 하겠다. 로빈스는 論文의 序論에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였다. “經濟分析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命題는 價値에 關한 一般理論의 命題이다. 이에 關한 理論이 完全하다고 말하기는 아직도 빠를지 모르겠으나 그 中心命題들은 이미 成立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만큼 많은 研究가 되어왔다.”<sup>(10)</sup> 로빈스는 이와 같은 命題가 歷史的인 事實에 의하여 유도된 것도 아니며 또한 自然科學에서와 같이 統制된 實驗에 의하여 유도된 命題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歷史的인 事實과 關連하여 命題를 導出하는 것은 같은 歷史가 되풀이 된다는 理由가 없는 한 그 命題가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統制된 實驗과 유사한 實驗이 經濟理論에 있어서도 可能(政府政策의 反復)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命題가 갖는 普遍妥當性은 극히 制限된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보다 더 普遍妥當性이 있고 不變하는 法則 또는 命題는 演繹的인 方法에 의하여 導出된다는 것이다.

“經濟學의 理論들은 모든 科學的인 理論과 같이, 명확히 일련의 命題(postulates)로부터의 演繹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命題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經濟學의 주제가 되는 商品의 稀少性(scarcity of goods)이 實際世界에 나타나는 方法에 關連된 單純하고도 否定할 수 없는 假定(assumptions)인 것이다. 價値理論의 中心命題는 個個人은 그들의 效用選好를 順序 있게 列舉할 수 있다는 것이고 事實上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生産理論의 中心命題는 生産要素가 1개 以上 存在한다는 것이다. 動態理論의 中心命題는 未來의 稀少性에 關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命題는 이들의 內容이 충분히 理解된 후에는 反對되는 命題가 나타나서 새로운 論爭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命題의 正當性을 위하여 統制된 實驗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日常生活에 있어서 너무도 흔한 事項(so much the stuff of our everyday experience)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명백한 事項으로 理解되기 위하여는 다만 記述만 되면 충분한 것이다. 眞正으로 問題가 되는

(10) L. Robbins, "The Nature of Economic Generalizations," 前掲書, p. 36.

것은 이러한 命題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實驗이 중요한 새로운 事實을 導出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나 高次元의 복잡한 理論, 命題들이 單純하게 보이는 이러한 命題에 궁극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命題를 가능케 하는 假定的 存在때문에 經濟科學의 보다 넓은 命題의 導出이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sup>(11)</sup>

로빈스는 以上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科學의 理論은 演繹의 方法으로 導出되는 것이며 統制된 實驗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經濟學의 基本命題들은 너무도 日常生活에서 명백하기 때문에 다만 그 命題를 記述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命題는 너무 명백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려운 經濟學의 命題들(theorems)이 이들로부터 導出된다고 하였다.

現代 科學哲學의 視點에서 볼 때 로빈스가 主張한 바와 같이 統制된 實驗(controlled experiment)에서는 普遍妥當性을 갖는 命題를 導出할 수 없다는 것은 수긍할 수가 있다. 아무리 演繹의 方法에 의하더라도 普遍妥當性을 갖는 理論 및 法則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곳에서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自然科學보다도 오히려 社會科學, 특히 經濟學에서 普遍妥當性있고 不變하는 法則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自然科學에 있어서의 法則은 모두 깨어졌거나 그보다 더 發展된 새로운 法則속에 흡수되어서 獨自의 方法으로 남아 있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社會科學 특히 經濟學에 있어서는 過去의 經濟學者들의 主張들이 아직도 重要視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社會科學이 自然科學보다 더 科學의인 것이 아닌가. 물론 科學의이라는 基準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다른 結論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科學的이라는 것이 正確성과 實驗可能性을 意味한다면 自然科學이 보다 科學의일 수 있다. 그러나 科學의 法則이 보다 오래 지탱하여야 하는 期間을 強調한다면 過去의 經濟學의 命題들은 긴 壽命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經濟學의 과거 理論이 아직도 그 有效性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過去의 理論이 普遍妥當性을 갖고 있으며 不變하는 眞理라고 하는 로빈스의 理論이 證明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로빈스가 經濟學의 中心課題로 삼는 상품에 대한 相對的인 評價(relative valuation)라든가, 利益極大化라든가, 理性的인 行動(rational behavior)도 그 후의 많은 學者들에 의하여 論議된 바와 같이, 여러가지 矛盾을 內包하고 있는 命題中の 하나인 것이다. 로빈스는 經濟

(11) 前掲書, p. 39.

學이 科學으로서 成立하기 위하여서는 배버가指摘한 沒價値(Wertfreiheit)한 部分을 重視하여 理性的인 行動이 결코 倫理的으로 合當한 行動(ethically appropriate action)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合理的 行動(consistent action)을 意味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로빈스의 立場에 대한 홀리스(Martin Hollis)와 넬(Edward J. Nell)의 批判을 들어 보자.

“로빈스가指摘한 命題가 전혀 올바른 것은 아니다. 價値理論만큼 論爭의 對象이 되는 部門이 별로 없다. 社會主義者와 마르크스主義者들은 限界理論에 결코 승복하지 않았으며 現代 成長論者들은, 價格, 收益率, 資本의 價値는 멩거나 마살보다 리카아도나 마르크스를 兪상하게 하고 또한 이는 選好의 序列(preference scale)에 상관없이 決定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英鎊의 法則은 家計를 研究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實證된 一般論이나 이는 限界論者들이 主張하는 消費者行動理論에서 유도된 것은 아니다. 需要의 法則도 많은 예외를 가지고 있다는 事實은 이미 實證되고 있다. 또 이에 反對되는 理論도 결코 적지 않다. 베블렌, 코먼스와 갈브레이드에 이르는 美國의 制度主義學者들은 個人의 相對的 效用(relative value)에 대한 選好序列이 獨立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完강히 否定하여 왔다. 그 社會全體속의 諸要因에 의하여 個人의 相對的 效用은 영향을 받고, 反대로 그러한 選好序列이 經濟的 諸要因에 影響을 준다. 그들은 명백히 로빈스가 根本的이고도 自明하다고 主張하는 命題를 否定하고 있다.”<sup>(12)</sup>

한편 로빈스는 經濟學의 몇개의 法則을 先驗的으로 족히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古典學派의 시니어(Nassau Senior)의 主張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시니어는 經濟理論은 결국 네개의 중요한 法則으로 要約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法則은 다음과 같다.<sup>(13)</sup>

첫째, 모든 사람은 最小限의 犧牲으로써 最大限의 富를 얻기를 원한다. 둘째, 世界의 人口는 다만 道德的이며 또한 肉體的인 罪惡에 의하거나 人間이 習慣化되어 있는 物質의 不足에 의해서만 控制될 수 있다. 이 命題는 맬더스와 같이 人口는 幾何級數的으로 增大하고 物資는 算術級數的으로 增大하여 결국 貧困이 支配하게 된다는 것을 意味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生産力의 增大에 의하여 生産도 계속 增大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勞動의 生産力과 富를 生産하는 生産手段의 生産性은 그들의 生産物을 生産을 增大시키는 目的에 使用함으로써 增大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生産手段의 확대에 의하여 生産要素의 生産性이 增大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넷째, 農業의 技術이 일정한 한 勞動의 限界生産物은 점차 減少하여 나간다.

물론 이와같은 네가지의 命題는 古典學派學者들이 研究하던 重要命題들을 종합한 것으로

(12) M. Hollis and E. Nell, "Two Economists," 前掲書, p. 54.

(13) Nassau Senior, *Outline of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6th ed, George Allen & Unwin, Ltd., 1872 參照.



생각되는데 지금의 時點에서 볼 때 經濟活動의 根本이 되는 네가지 命題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命題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命題가 현재 우리 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經濟現象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實驗的 內容(empirical content)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經濟學說史를 훑어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經濟學을 先驗的이고도 假說的인 方法에 의하여 研究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經濟學이 現實問題를 다루는 實質的인 學問임에도 불구하고 現實問題에 대한 實證的인 研究가 소홀히 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맬더스가 有效需要의 부족이 發生하면 失業이 發生한다는 것을 指摘하였을 때 이는 그 당시 古典學派 理論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세이의 法則(Say's Law)과 상치되는 것으로서 理論的으로 檢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케인즈에 이르기까지 有效需要理論이 사장되어 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큰 批判없이 수용되었던 新古典學派의 理論은 케인즈에 이르러서 그 實際的인 有效性에 관하여 疑問이 提起되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 IV. 新古典學派 理論의 方法論的 評價

科學哲學의 方法論的 立場에서 現代經濟學의 일반적인 研究傾向이 어떻게 展開되고 있는지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現代經濟學에는 여러 學派가 併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分析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므로 이 곳에서는 現代經濟學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新古典學派 理論을 檢討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新古典學派를 科學的 方法論的 立場에서 檢討하는 이유는 新古典學派가 지니고 있는 問題點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現實을 說明내지 豫測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구명하는 데 있고 더 나아가서는 韓國經濟問題를 說明·豫測하는 데 얼마나 效力이 있는가를 反省하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以下에서는 新古典學派 理論中에서 가장 實驗的 內容이 많다고 할 수 있는 企業理論을 中心으로 檢討하여 보고자 한다.

企業理論은 消費理論과 함께 新古典學派 理論의 가장 重要한 部門으로 간주되고 있다. 消費理論이 需要曲線을 유도한 데 반하여 企業理論은 供給曲線을 제시하여 需要曲線과 供給曲線에 의한 價格決定理論이 體系化되었다. 이와 같은 供給曲線을 가능하게 하는 企業生產理論은 항상 單一企業, 單一商品을 중심으로 한 靜態的인 分析方法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여기서의 企業은 金錢的인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新古典學派 理論의 科學으로서의 有效性을 보기 위하여서는 먼저 新古典學派 理論이 내포하고 있는 假定들이 올바른가 하는 分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理論이 現實을 얼마나 說明·豫測하고 있는가를 分析하여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企業이 金錢的인 利潤을 極大化시키는 것을 假定하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많은 批判이 가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즉 企業은 金錢的인 利潤만 極大化시키는 것이 아니라 消費者理論에서 指摘되는 바와 같이 效用函數(utility function)를 極大化하는 것으로 企業의 效用函數에는 金錢的 利潤 以外에 名譽, 餘暇, 統制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企業은 賣出額을 極大화한다든가, 市場의 占有率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더욱 重要性을 부여한다든가, 目標利潤率을 決定한다든가 등의 많은 企業活動의 目的에 대한 假定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企業은 企業環境의 不確實性때문에 利潤의 極大化라는 것이 사실상 不可能하고 안정적인 企業의 運營에 目標를 두고 있다고 主張하는 學者도 있다.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을 포퍼·라카토스의 科學方法論에 의하여 分析한 라트시스의 理論<sup>(14)</sup>을 살펴보기로 하자. 科學哲學 및 方法論의 概要에서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라카토스는 法則이라는 用語自體를 使用하지 않고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이라고 指摘하고 있고 科學的 프로그램은 堅固한 中核과 이를 둘러싼 保護벨트가 있고 이러한 科學프로그램을 分析하는 方法으로 積極的 發見法과 消極的 發見法이 있다고 하였음은 이미 指摘한 바이다. 이와 같이 라카토스의 科學方法論에 따라서 라트시스는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을 다음과 같이 分析한다. 라트시스에 의하면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의 堅固한 中核은 利潤極大化, 完全知識, 完全市場과 獨立된 決定過程 등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의 堅固한 中核은 一般적으로 企業理論에 있어서 假定으로 使用되고 있고 反論이 不可能한 命題들이라고 하겠다. 保護벨트를 형성하는 보조적인 假定들로서는 商品의 同質性, 많은 數의 企業, 自由로운 參與와 離脫을 들고 있다.

新古典學派의 積極的 發見法은 比較靜態理論을 成立시키는 데 필요한 要因들로 構成되고 있다. 즉 市場을 購買者와 販賣者로 區分하고, 市場環境을 規定하고 가장 理想的인 行動假定을 세우고 이러한 與件下에서 企業의 最適活動을 發見하는 것이다. 라트시스에 의하면 新古典學派에 있어서의 企業行動을 狀況的 決定(situational determination)이라고 規定지운다. 즉 狀況的 決定이라는 것은 決定에 필요한 目的과 이러한 目的이 達成될 수 있는 狀況이 주어지면 企業人活動의 選擇過程은 필연적으로 決定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企業理

(14) S.J. Latsis, "A Research Programme in Economics," *Method and Appraisal in Economics*, S.J. Latsis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參照.

論에 있어서 企業人이 不完全競爭市場에서 利潤極大化의 目的函數가 주어지면 그는 이러한 주어진 與件속에서 限界收入이 限界費用과 一致하는 點(利潤極大化)에서 生産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生産을 일체 하지 않는 쉬운 決定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은 포퍼·라카토스의 方法論에 의하여 分析하면 反論할 수 없는 假定下에서 論理的으로 導出되어 나오는 命題들이라고 하겠다. 특히 新古典學派 理論이 完全雇傭을 假定하고 있기 때문에 現實과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라트시스에 의하면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은 現實을 설명하는 능력이 감소되어가기 때문에 退步하는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라트시스에 의한 論議中에 유의할 점은 新古典學派가 갖고 있는 假定들에 重點을 두고 新古典學派 理論의 豫測可能性에 관하여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그가 처음부터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이 豫測性을 갖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한편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의 豫測性이 그 프로그램의 假定의 現實性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프리드만을 포함한 道具主義者들(instrumentalists)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假定이야 어떻든 그 理論이 現實을 보다 잘 豫測하면 족하다는 意見과는 差異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道具主義者들이 主張하는 것에 전적으로 同意를 할 수는 없으나 假定이 非現實的이라는 理由로써 科學的 研究프로그램自體를 否定하려는 立場은 옳바르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은 이 假定들의 非現實性을 충분히 認定하면서도 그 理論의 豫測性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新古典學派 企業理論이 갖는 豫測性 自體가 극히 약한 것이 사실이고 포퍼·라카토스의 科學方法論에 의하면 어느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이 現實에 의하여 反證되었다 하여 그 效力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강력한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이 생길 때까지는 存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이 現實은 잘 豫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保護벨트가 退步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아직도 그 理論全體가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으로서 중요한 位置를 갖고 있는 것은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보다 더 現實을 잘 豫測하는 企業理論이 아직까지 자리를 굳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을 批判한 學者中에 사이몬의 論文<sup>(15)</sup>을 살펴보자. 사이몬은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을 以上에서 檢討한 라트시스와 유사한 方法으로 批判하고 있다. 라트시

(15) H.A. Simon, "From Substantive to Procedural Rationality," F. Hahn and M. Hollis (eds.), 前掲書 參照.

스는 企業理論에 있어서 두가지의 相異한 科學的 研究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첫째는 狀況決定論(situational determinism)이고 둘째는 經濟的 行爲論(economic behaviorism)이라고 하였다. 狀況決定論은 지금까지의 新古典學派 理論에서 使用된 概念인 데 비하여 經濟的 行爲論은 心理學에서 論議되는 概念이라고 한다. 狀況決定論은 目的函數와 企業活動의 市場與件에 대한 假定이 주어졌을 때 最適行動을 導出하는 決定過程을 指摘하는 데 비하여 經濟的 行爲論은 새로운 經濟與件下에서 또는 與件的 變化가 생겼을 때 企業人이 대처하여 나가는 合理的인 過程을 指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前者는 抽象的이고 假說的인데 비하여 後者는 어디까지나 現實的이고 經驗的인 面을 重視한다고 하겠다.

사이몬은 라트시스와 유사한 分離方法을 使用하고 있는데 企業의 合理的 行動을 根本的 合理行爲(substantive rationality)와 進行的 合理行爲(procedural rationality)로 區分하고 있다.

사이몬에 의하면 根本的 合理行爲는 주어진 條件과 要件의 範圍內에서 주어진 目的을 達成하는 데 필요한 行爲를 意味한다고 하였고 進行的 合理行爲는 適切한 熟考(appropriate deliberation)의 結果로서 나타나는 行爲를 意味한다. 따라서 根本的 行爲論의 定義에 의하면 企業人의 恣意的인 選擇은 그의 目的의 設定뿐인 것이고 모든 合理的 行爲는 주어진 環境의 性格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것이다. 즉 사이몬에 의하면, “新古典學派 理論은 두가지 基本假定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의 假定은 經濟人이 어떠한 目的, 예컨대 效用極大化라든가 利潤極大化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의 假定은 經濟人이 根本的 合理行爲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의 假定과 주어진 특정한 經濟環境이 주어지면 經濟分析은 記述的인든, 規範的인든간에 定差方程式이나 線形프로그램이거나 動態的 프로그램 등의 전형적인 方法에 의하여 遂行될 수 있다.”<sup>(16)</sup>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進行的 合理行爲는 心理學에서 많이 使用되는 概念으로서 合理的 行爲의 進行過程이 重視되는 것이며 그 合理的 行爲의 結果가 重視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心理學에 있어서는 이러한 合理的 行爲를 認識過程(cognitive process)이라든가 知識過程(intellective process)이라고 일컫게 된다.

사이몬은 經濟學이 根本的 合理行爲의 假說로부터 進行的 合理行爲의 假說로 移轉하여야 하는 理由에 對해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나의 主張은 企業經營에 대한 접촉에서 중요한 것은 決定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에 관

(16) 前掲書, p. 67.

한 觀察이며 단순히 最終結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政策決定過程의 問題가 古典學派理論이 다루고자 한 問題들에 重要性을 갖고 있는가는 불문하고도, 問題解決 및 政策決定의 現象이 이를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知的인 흥미를 높인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들은 人間行爲의 흥미있고도 중요한 部門의 하나로써 어느 科學者라도 이를 記述하고 說明하고자 努力할 것이다. (17)

“企業人들은 限界費用과 限界收入이 일치하도록 崇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利潤極大化라는 根本的 命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命題를 達成할 수 있게 하는 手段이 存在할 때 그 意義를 갖게 된다. 企業人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러한 政策決定過程를 發見하고 建設하며 또한 필요한 資料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다.” (18)

以上에서는 주로 新古典學派 理論中에서도 가장 實驗的 內容이 많은 企業理論을 檢討하였는데 라트시스나 사이몬 등이 指摘한 바와 같이 그 理論의 背景에 있는 假定의 現實性이 희박하다는 批判을 즉히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經濟學者들이 企業理論을 展開하는 데 있어서 狀況의 決定에 지나치게 치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完全競爭, 完全情報 등의 企業人이 活動하는 與件을 提示한 後, 目的函數를 주면 極大化原則에 의하여 數式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方法에 의하면 企業人이 利潤極大化를 위하여 취할 行動樣式이 自動적으로 導出되나, 이러한 企業人의 行動指針이 現實을 說明하는 데 큰 效用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學이 보다 큰 實驗的 內容을 갖기 위하여서는 사이몬이 지적한 進行的 合理行爲나 라트시스가 指摘한 經濟的 行爲에 좀더 重點을 두어서 企業理論을 展開하는 것이 科學的 方法論으로 볼 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新古典學派의 企業理論이 現實을 說明하는 데 여러가지 手段을 提供하고 있다는 事實도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供給曲線을 導出하였다는 점, 價格이 올라가면 企業人이 供給을 增大시킨다는 것, 企業이 獨占狀態에서는 獨占利潤을 얻는다는 등의 命題들은 現實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經營學에서도 經濟學理論中 많이 인용하는 分野가 企業理論이라는 것은 企業理論이 아직까지 實驗的 內容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企業理論中 實驗的 內容을 갖고 있는 部門은 마살이 이미 指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이후에 企業理論에 관한 研究가 얼마나 發展的 問題移動(progressive problem-shifts)을 하여 왔는가에 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新古典學派의 理論中에는 극히 現實과 거리가 먼 抽象的인 분야가 많고 또한 論理的 또

(17) 前揭論文, p. 74.

(18) 前揭論文, pp. 74-75.

는 科學的 構造에 치중하고 있어 實驗的으로 後退하는(empirically degenerating problem-shifts)理論들도 많은 것이 事實이다. 즉 一般均衡理論, 比較優位理論, 파레토最適, 合理的 期待理論 등은 특히 新古典學派의 理論中에서 理論의 假定과 豫測性이 극히 낮은 部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理論을 展開한 學者들은 이러한 理論들이 現實을 豫測하는 힘은 적지만 이러한 理論을 理解함으로써 經濟學全般을 理解하는 能力을 키워서 그 結果로 現實을 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예컨대 복잡한 一般均衡理論을 理解하였다고 하여 現實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질 지에 대하여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韓國이라는 특수한 事情을 고려할 때 여러가지 經濟理論을 檢討함에 있어서 韓國經濟에 대한 豫測性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느 學派의 理論만이 經濟理論으로 옳다는 態度보다는 競爭하는 理論이 存在할 때에 科學의 發展이 있다는 것과, 併存하는 理論들은 결국 現實에 의하여 判定지워진다는 것을 重視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外國文獻〉

- Alchian, A.A., and Allen, W.R., *University Economic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64.
- Blaug, M.,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Boland, L.A., "Conventionalism and Economic Theory," *Philosophy of Science*, 1970, pp. 37, 239-48.
- Boland, L.A., "A Critique of Friedman's Crit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79, pp. 503-22.
- Boland, L.A., *The Foundations of Economic Method*, George Allen and Unwin, 1982.
- Caldwell, B.J., *Beyond Positivism: Economic Method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George Allen and Unwin, 1985.
- Feyerabend, P.K., *Against Method: Outline of an Anarchistic Theory of Knowledge*, London: NLB, 1975.
- Feyerabend, P.K., "On the Critique of Scientific Reason," *Method and Appraisal in the Physic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309-39.

- Feyerabend, P.K., *Science in a Free Society*, London: NLB, 1978.
- Friedman, M.,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Hahn, F., and Hollis, M., *Philosophy and Econom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Hayek, F.A.,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1967.
- Hindess, B., *Philosophy and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The Harvester Press, 1977.
- Hollis, M., and Nell, E.J., *Rational Economic Man: A Philosophical Critique of Neo-Classical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Hutchison, T.W., *Knowledge and Ignorance in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Lakatos, I. and Musgrave, A.,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Latsis, S.J., "Situational Determinism in Economics,"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1974, pp. 23, 207-245.
- Latsis, S.J., "A Research Programme in Economics," *Method and Appraisal in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Leijonhufvud, A., "School, Revolutions, and Research Programmes in Economic Theory," *Method and Appraisal in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1976, pp. 65-108.
- Lipsey, R.G., *An Introduction to Positive Economics*, Weidenfeld & Nicolson, 5th ed, 1979.
- Mises, L. von.,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London: William Hodge, 1949.
- Mises, L. von.,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An Essay on Method*, Kansas City: Universal Press Syndicate, 2nd ed, 1978.
- Mises, L. von., *On Revolutions and Progress in Economic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Popper, K.,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Harper Torchbooks, Reprinted 1965.
- Popper, K., *Conjectures and Refutations*,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and Henley, 1981.
- Rima, I.H., *Development of Economic Analysis*, Irwin, 1986.

- Robbins, L.,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London: Macmillan, 2nd ed, 1935.
- Robbins, L., "On Latsis: A Review Essa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79, pp.17, 996-1004.
- Ryan, A., *The Philosophy of Social Expla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 Stove, D., *Popper and After*, Pergamon Press, 1982.
- Worrall, J. & Currie, G.,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Philosophical Paper*, Vol.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Worrall, J. & Zahar, E., *Proofs and Refut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Wrong, D., *Max Weber*, Prentice- Hall, Inc., 1970.

〈國內文獻〉

- 朴宇熙, 『韓國經濟學 研究序說』, 韓國經濟研究院, 1986.
- 朴宇熙, 『科學, 哲學과 韓國經濟의 認識』, 韓國經濟新聞社, 1986.
- 李鍾守, 『막스 베버의 學問과 思想』, 1982, 한길사.